



한인소망교회 비전

마태복음 11:28-30

WELCOME  
WORSHIP  
DISCIPLESHIP  
Hope Church

주일예배 및 모임안내

주일1부예배 / 본당	9:00 am
주일2부예배 / 본당 & 라이브	11:00 am
Youth / 아가페홀	11:00 am
유초등부 / 아가페홀	11:00 am
영유치부 / 본당 지하	11:00 am

화요소망학교 / 아가페홀	11:00 am
수요대학/기도회 / 본당	8:00 pm
새벽예배 (화-토) / 본당	6:00 am
청년부예배 (토) / 아가페홀	12:30 pm

교회를 섬기는 이들

Hope  
Church  
Staff

담임목사	김성직 목사
방송/청년	오정훈 목사
소망학교	이신웅 전도사
중고등부	문강한 전도사
유초등부	(청빙중)
영유치부	김성은 사모
시무장로	백형수 윤순기
휴무장로	오귀록
은퇴장로	김대희 배상진 임병갑 장기림 백근조 이덕홍 이창진 윤순화
찬양인도	황규식
지휘자/서무	박은실
반주자	노윤실 사모 (1부, 새벽) 김은화 이화니 (2부)
통역자	김예람 이화니
방송	조준한 송명신

열방을 섬기는 이들

Missionaries

태국	배종원	요르단	설총호/전경원
중국	이주애	도미니카	이광호
케냐	이영규	아파치인디안	강원용
칠레	황신재	키르키즈스탄	바나바/다비다
모로코	김영목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세인트루이스 한인소망교회**  
Korean Hope Presbyterian Church of St. Louis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Church: (314) 275-2661  
Agape Hall: (314)786-5018  
www.hopestl.org



3.5.2023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1부 9 AM 2부 11:00 AM

LIVE

교회설립  
기념주일

# 설립 55주년 기념주일예배

경배와 찬양	찬양팀 (15분 전부터 시작됩니다)
* 기원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
성서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Lent (2)
참회의 기도	잠언 Proverbs 28:13
찬송	찬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b>다같이</b>
기도	<b>윤순화</b> 장로
광고	인도자 / 김성직 목사
봉헌 & 봉헌찬송	찬393장 오 신실하신 주 <b>다같이</b>
봉헌기도	인도자 / 김성직 목사
성경봉독	시편 Psalm 95편 1-11, OT p873
말씀	<b>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b> / 김성직 목사
Sermon	Come, Let Us Sing to the LORD...
*결단의 찬양	은혜 / <b>다같이</b>
* 축도	김성직 목사

\* 일어서서 Please stand up

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공적인 사건)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 말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는 말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고 말하면, 빌라도만 나쁜 놈이 됩니다. 하지만 '빌라도 치하에서'라고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재판 자체가 빌라도의 책임 아래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 빌라도의 역할, 두 가지

예수님의 재판에서 빌라도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1) 하나는 예수님의 무죄 입증입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빌라도 앞에 와서는 "이 예수는 로마 황제 아닌 다른 왕이 있다고 주장합니다"라면서 모함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어도 로마를 대신하는 총독으로서, 예수님이 반역을 꾀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2) 빌라도의 두 번째 역할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일, 즉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책임 하에서 예수님은 사형당하셨습니다. 유대의 총독은 당시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그다지 높거나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권력 앞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한 없이 낮추셨습니다. 더 이상 낮출 수 없을 만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어마어마한 대로마제국의 황제도 우스운데, 그가 보낸 변방의 작

은 나라를 책임지는 총독이야 얼마나 낮은 자리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엎드려, 그의 권위에 순종하십니다. 그의 재판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빌라도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빌라도의 재판을 하나님의 재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킬 권한이 있다고 으스스하게 주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요한복음 19:11)"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별 하찮은 권력을 가진 빌라도 앞에서 대꾸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자신을 낮춰서 죄인으로 벌을 받으신 이유는, 진짜 죄인이기에 감히 고개도 못 들고 끄떡없이 부끄러움과 고통을 당해야 할 우리가 영광스런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가되, 재판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빌라도 치하에서!"

빌라도를 비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분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찮은 권력을 가진 빌라도 앞에서도 한없이 낮아지심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1:12)"

#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11)

수요대학에서 나누었던 “성경으로 풀어난 사도신경 (이운연 지음)”의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늘 내 안에 있는 신앙을 점검하고, 또 맡겨진 모든 곳을 바르게 세워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제9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 갈라디아서 3:13 ]

1.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1) 하나님의 진노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즉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셨습니다.

(2) 화목제물

예수님은 화목제물로서 고난 당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벌을 받은 제물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소, 염소, 양, 비둘기 등의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화목제물을 직접 준비하십니다. 심청전의 용왕님처럼 사람에게 ‘아리따운 처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용왕님이 그런 요구를 했다는 생각도 사람이 지어낸 생각일 뿐이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화목제물이 바로 당신의 아드님, 예수님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벌 받으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뒤집어쓰고, 우리 대신 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예수님은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입니다.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답: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자에게 정죄(定罪)를 받으셨으며, 이

# 성시교독

교독문 125번 사순절 Lent (2)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다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시95편)

<본문 속으로>

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앞에 어떻게 나아가며 노래하자 하나요? (2절)
2. 또 오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요? (6절)
3.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그분의 무엇인가요? (7절)
4. 이스라엘이 완악한 마음이었던 대표적인 장소가 어디인가요? (8절)

[ 토요일 ]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의”와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날마다 새 힘과 권능을 주셔서, 귀한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능력있게 전하고 주님 사랑으로 성도들을 품게 하소서.
3. 모든 리더십들에게 항상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반석 위에 모두 한 마음으로 동역하게 하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풍성한 섬김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 주일 ]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1.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2. 거짓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으며, 오직 예수님의 선하심을 내 안에서도 점점 회복해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3.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로 주께 납작 엎드러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함께 기도 ]

- 이창진 장로님: 무릎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 안성실 권사님: 허리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 배상진 장로님: 교통사고로 등에 골절을 입으셔서 보호대 착용 중입니다.
- 김기봉 장로님: 현재 키모(chemotherapy) 치료 중입니다.
- 송명신 자매님: 계속 건강회복중입니다.
- 이소연 자매님 딸 엘라: 어릴적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앓고 있습니다.  
 3월7일 발목과 고관절 수술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 기도제목 PRAYER REQUESTS

### [ 월요일 ]

####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게 하소서

1. 오직 성경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주께서 옳다 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행하는 열매가 점점 맺히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반면 “악”한 것에는 미련하게 하소서.

### [ 화요일 ]

####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부모인 내가 먼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소서.
2. 하나님만이 중심 되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되게 하소서.
3. 성경적 가정의 모범을 이루어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며 순응하게 하소서.

### [ 수요일 ]

####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1. 주께서 맡겨주신 자리이기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2. 성경 말씀에 기초한 선택과 집중으로 학업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소서.
3. 세상과 아무런 마찰이 없이 편하

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빛의 용사가 되게 하소서.

### [ 목요일 ]

####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1.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하소서.
2. ‘코로나19’을 지나가며, 각 나라와 민족들이

더욱 더 하나님 앞에 무릎꿇고 회개하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3.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진 주님의 몸 된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 [ 금요일 ]

####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소서

1.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소서.
2. 믿음의 유산을 상속받아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교회와 민족과 맡겨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3. 흔들리는 세상 문화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뜻을 정하게 하소서.

### <생활 속으로>

1. 오라 우리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의 은혜에 집중하고, 늘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내게 부족한 무언가에 집중하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돌아보고 있는지, 그렇게 은혜를 깨달아가고, 나의 작음을 알아가면서 그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2. 오라 우리는 여호와께 노래하며, '경배함으로', 참 심을 얻고, 나는 쇠하지만 주는 강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자가 맞는지, 예배를 통하여 재충전을 얻고 참 된 안식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지, 내 고집은 얼마나 쇠하여 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은 원하면서 예배는 소홀히 여기는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 교회소식 ANNOUNCEMENTS

### 예배를 섬기는 이들

Mar 5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윤순화장로	키르키즈스탄 (3월)	도미니카	김예람

Mar 12	대표기도	교회청소	애찬담당	설교번역
	백형수 장로	키르키즈스탄 (3월)	중국	이화니

### 향기로운 예물 2/26/2023

주일	\$671	선교	\$0	주일학교/유스	\$10
십일조	\$6,601.87	구역선교	\$0	첫열매	\$94.40
감사	\$375			지진재난 구조금	\$3,405
건축	\$0				
				헌금총액	\$11,157.27

### 헌금외 수입금

Hope Cafe 수입금	\$70	성경책, 생명의 삶	\$65
		합계	\$135
		입금총액	\$11,292,27

교회헌금 KHPC 2210 McKelvey Rd., Maryland Heights, MO 63043

온라인 <http://hopestl.org/online-donation>

### 1.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구제헌금

지진으로 인한 난민 구조금을 오늘까지 모금합니다. 모금된 전 구제헌금은 KAPC총회 세계선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 2. '로마서 성경필사'

예전에 요한복음 성경필사 했던 그대로 이번에는 로마서를 필사해서 세상에 딱 한 권 밖에 없는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기간을 2월 첫째 주일부터 5월 마지막 주일까지 잡았습니다.

개인의 노트로 필사하셔도 되고, 교회에 필사노트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요.

### 3. 교회설립기념주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4. 정기당회

오늘 식사교제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 5. 86회 중부노회

3월6일(월)~8일(수) 시카고에서 있습니다. 담임목사님 출타하시는 관계로 이번 수요대학은 휴강합니다.

### 6. Daylight Saving Time

다음 주일(3/12)부터 시작합니다.

### 교우동정

새로 등록하신 교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기도구역

칠레 구역 (백형수 구역장) 과  
황신재 선교사님 위해서

### 기도가정

백형수 (임춘남 권사) 장로님 가정 위해서  
맡겨주신 직분 자 감당케 하여 주시고  
가정이 성령안에서 하나되도록

## 교회행사

2월 5일 (주)  
~ 5월 28일 (주)

로마서 성경필사

3월 5일 (주)  
정기당회

3월 6일 (월)  
~8일 (수)

86회 중부노회

3월26일 (주)  
1/4분기 제직회